

[보도자료] 쿠팡, 디지털페어 오픈, 최대 60% 할인

2019. 8. 16.



- 8월 25일까지 6200여 개 디지털상품 한 자리에
- 페어 2주 기간 내 1주일씩 2회 8개 상품 선정, 할인특가전 등 운영

2019. 8. 16. 서울 — 쿠팡은 신학기를 맞아 각종 디지털상품을 한 데 모아 '신학기 디지털페어'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페어는 노트북, 모니터, 소형가전 등 신학기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 6,200여 개의 상품을 최대 6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1주일씩 2회 각각 8개 상품을 선정해 할인특가로 마련한다. 별도의 쿠폰 발행 없이 약 120여 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즉시할인관도 준비했다.

신학기 인기아이템을 총 9개 카테고리인 ▲노트북 ▲태블릿PC ▲모니터 ▲데스크탑 ▲프린터/복합기 ▲저장장치 ▲주변기기 ▲음향/디지털 ▲소형가전으로 구분해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였다. 또 '브랜드관'을 운영해 삼성, LG, 한성컴퓨터 등 국내외 총 20개 유명 가전 및 디지털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상품으로 'LG전자 그램 2in1 노트북'은 360도 회전하여 태블릿처럼 사용가능하며, 와콤 펜이 포함돼 섬세하게 필기할 수 있다. 쿠팡가로 139만원대, '한성컴퓨터 FHD 커브드 게이밍모니터'는 21:9 와이드 스크린으로 실감나는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쿠팡가 22만 7000원대다.

이병희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가을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노트북, 태블릿PC 등 디지털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더 좋은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국내외 인기브랜드의 상품들로 알차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참고서, 필독서, 가구 등을 선보이는 신학기준비테마관도 함께 운영 중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